

I. 조사개요

1. 조사명 : 서울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부지('가'지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2. 조사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26-1번지 일원
3. 허가번호 : 문화재청 제2019-0090호
4. 조사면적 : 14,600㎡ ('가'지역 정밀발굴조사 면적) / 사업면적 : 47,302㎡
- 정밀발굴면적 : 약 14,600㎡ ('가'지역 : 12,300㎡ / '나'지역 : 2,300㎡)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6. 조사기간 : 2020년 10월 26일 ~ 현재(*실조사일수 160일-'가'지역)
7. 조사기관 :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

II. 역사적 배경

지금의 경복궁과 세종로 일대의 도시구획은 1392년 조선이 개국되고 1394년 한양천도가 이루어지면서이다. 1394년 12월 4일에 종묘와 궁궐의 공역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1395년에 경복궁과 종묘, 관아 등이 육조거리와 함께 완성된다. 이 당시 육조의 관청들은 아직 온전한 청사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405년(태종 5)에 관제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동안 정3품에 머물러 있던 육조를 정2품 관청으로 승격시켰다. 육조는 인사제도를 주관하는 이조(吏曹),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병조(兵曹), 호구·공부·전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호조(戶曹), 외교와 의례를 주관하는 예조(禮曹), 법률·소송·형옥·노예에 관한 일을 다루는 형조(刑曹), 그리고 토목을 관장하는 공조(工曹)로 이루어졌다.

태종대에 와서 행랑조성도감이 도성 간선도로에 장랑(長廊)을 건설하고, 간선도로의 폭도 일정하게 정비하면서 육조관청이 광화문 앞에 동서로 도열하는 육조거리가 탄생하였다. 조선 초기에 지어진 육조거리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별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되다가, 임진왜란(1592년), 병자호란(1636년) 양란으로 육조거리의 양측에 건설되었던 관아건물은 거의 모두 파괴되었다.

1863년(철종 14) 고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친부 흥선대원군은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1865~1868년)하였다. 이때 육조거리는 다시금 궁궐 앞에 조선 최고위 관청들이 좌우에 도열한 건국 이래의 형세를 되찾을 수 있었다.

1894년(고종 31)부터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갑오개혁은 전통적인 육조 체제를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육조거리는 관청 배치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갑오개혁 이후 6조가 내무아문, 외무아문, 학부아문, 탁지아문, 농상공부, 군부아문, 법무아문, 공무아문 8아문으로 바뀌었으며, 1894년에 내부, 외부, 탁지부, 법부, 학부, 군부, 농상공부의 7부 편제로 관제가 개편되었다. 1900년에 와서는 헌병사령부와 경부 등 새로운 관청이 나타났다.

1910년(순종 3)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고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면서 식민통치 체제가 시작되었다. 1914년 육조거리는 광화문통(光化門通)으로 개칭되면서 노퍽이 좁아지게 되고, 대로 주변 관청 배치 역시 이전과 전혀 다른 식민체계를 반영한 모습으로 달라졌다. 1920년대에 들어와선 육조거리 양변에 건설된 장랑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고고학자가 들려주는 광화문광장 일대 매장문화재 이야기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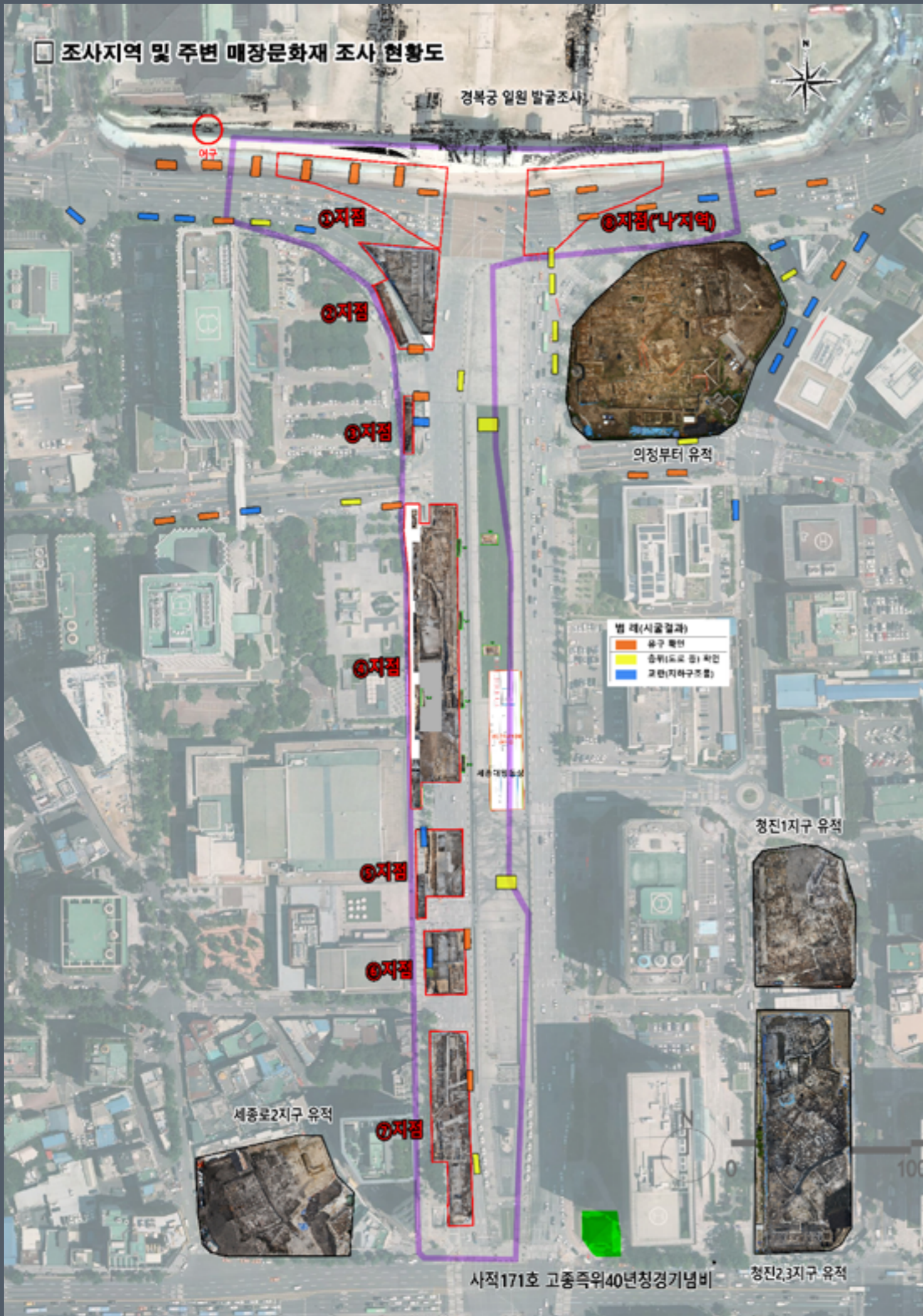


사진1. 삼군부 영역(2지점) 전경



사진2. 삼군부 영역(2지점) 행랑 화방벽 적심



사진3. 사헌부 영역(4지점 북측) 전경



사진4. 사헌부 영역(4지점 북측) 추정 문지 전경



사진5. 사헌부 영역(4지점 북측) 담장 및 행랑 추정지역 전경



사진6. 사헌부 영역(4지점 북측)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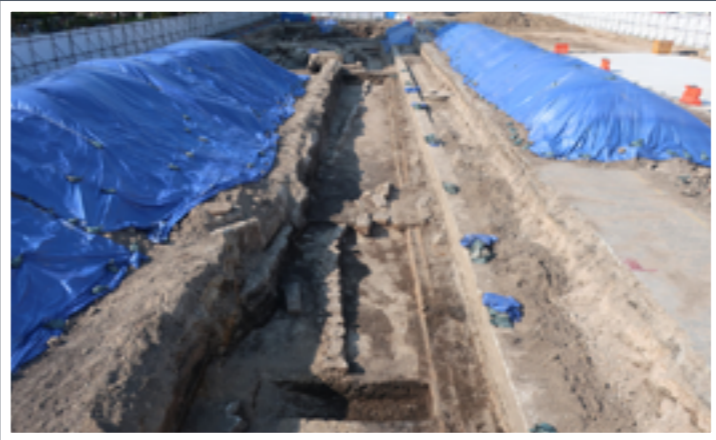


사진7. 육조거리 추정 배수로 석렬



사진8. 육조거리 추정 배수로 석렬 세부